

영화 '해치지않아' 15일 개봉... 배우 강소라

# “나이 서른에 첫 코미디 연기 사람들 의식 없으니 편해요”

### 사자탈 쓰고 위장 근무 동물원 수의사 연기 “영화 착한데 재미도 있어”

“코미디 연기요? 한두 작품 더 하면 감이 올 것 같은데요. 하하”

오는 15일 개봉하는 영화 '해치지않아'로 코미디 연기의 '맛을 본' 배우 강소라(30)는 이같이 말하며 웃었다.

'해치지않아'는 망한 동물원 '동산파크'에서 사람들이 동물 탈을 쓰고 동물로 위장 근무한다는 설정에서 출발한다. 강소라가 연기한 소원은 동산파크 수의사이자 그곳 마스코트 북극곰 '까만코'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인물. 동물로 위장 근무하는 제안에 탈을 쓰고 사자로 변신한다.

7일 종로구 삼청동에서 만난 강소라는 “착한데 재밌기까지 한 영화”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탈이나 컴퓨터 그래픽(CG) 등을 통해 내용이 잘 구현될지가 걱정이었다고 털어놨다.

“그런 기술적인 부분이 조금 걱정되긴 했지만 내용상으로는 워낙 소재군 감독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서 전혀 걱정하지 않았어요. 큰 기대는 하지 않았는데 탈이 진짜 (동물) 같더라고요. 탈 쓰고 연기할 때는 무겁고 더우니까 힘들었지만 언제 그렇게 비싼 탈을 써보겠어요. (웃음)”

수의사 역할을 위해서는 “동물원에서 근무한 수의사에게 조언을 듣고 인터넷에서 여러 자료를 찾아봤다”고 말했다.

“제가 강아지를 기르긴 하지만, 동물원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보진 않았던 것 같

아요. 이번 영화를 통해 활동반경이 넓은 야생 동물들이 동물원이라는 제한된 장소에 있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어요. 북극곰 까만 코와의 이야기는 곰의 성장 과정을 그린 다큐멘터리를 참고했어요. 마치 제가 까만 코의 성장 과정을 다 본 것처럼요.”

전작 '자전차왕 엄복동'의 흥행 실패에 대해서도 '쿨'하게 언급했다.

“저는 대본을 재밌게 읽어서 출연한 건데, 왜 흥행이 안 됐는지는 관객들이 알지 않을까요. (웃음) UBD(‘엄복동’의 이니셜로 만들어진 관객 단위를 나타내는 신조어)에 대해서도, 제가 했던 작품이 기준점이 돼서 기쁘게 생각해요. ‘해치지않아’가 잘 돼서 새로운 기준이 됐으면 좋겠어요.”

올해로 만 서른이 되는 강소라는 “서른이 넘으면서 여유가 생기고 자신에 대해 더 잘 알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강소라가 개인 SNS 계정에 올리는 자연스러운 사진들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전에는 ‘사람들이 안 좋아하면 어쩌지?’라는 생각이 많았는데 지금은 좀 편해졌어요. 전연 외국어도 배우고 이것저것 많이 했는데 지금은 나에 대해서 더 생각하고 사람들과 즐겁게 지내려고 해요. 웃도 아웃도어가 편하고, 한약도 찾아 먹고요.”

그는 광고 등에서 보이는 특유의 건강 한 이미지에 대한 부담도 많이 사라졌다고 강조했다.

“전에는 다이어트도 강하게 했는데 지금은 건강하게 먹고 건강하게 관리하려고 해요. 다음 작품요? 이미지 생각 안 하고 하고 싶은 작품이라면 하려고요.”



배우 강소라는 15일 개봉하는 영화 '해치지않아'로 코미디 연기에 도전한다. 강소라는 이번 기회로 코미디 연기를 '맛 봤다'며 한 두번만 더 도전하면 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웃으며 말했다. /연합뉴스

## 우리가 소환한 슈가맨...JTBC 양준일 특집

16일·23일 밤 11시 방송

JTBC는 최근 재조명받는 가수 양준일(사진)의 국내 활동기를 담은 2부작 '특집 슈가맨, 양준일 91.19'를 오는 16일과 23일 밤 11시에 방송한다고 7일 밝혔다.

프로그램 제목에는 양준일 데뷔 연도인 1991년과, JTBC 프로그램 '슈가맨 3'를 통해 재소환된 2019년을 기념하는 의미가 담겼다.

양준일은 지난달 6일 방송된 '슈가맨 3'에 출연해 신드롬급 화제를 불러모았다. 1990년대 데뷔한 가수라고 믿기지 않을 만큼 뛰어난 패션 감각과 독창적인 퍼포먼스, 그리고 재미 교포 출신으로 연예계 활동 당시 겪은 역경이 재조명됐다.

이번 특집에서는 '슈가맨3' 출연 후 전성기를 맞은 양준일의 국내 활동 이야기와 '인간 양준일'의 진솔한 면모를 엿본다.

프로그램을 기획한 윤현준 CP는 “우리 시대가 다시 소환한 양준일이 생애 첫 팬



미팅을 준비하며 느낀 진한 감동과 환희, 그리고 그가 직접 전하고 싶었던 진심을 모두 담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박시은·진태현 부부 '동상이몽2' 딸 입양기 공개

20일 방송부터 합류

SBS TV 스타 부부 관찰 예능 '동상이몽2-너는 내 운명'은 연예계 대표 잉꼬부부 배우 박시은과 진태현이 오는 20일 방송부터 합류한다고 7일 밝혔다.

2010년 드라마 '호박꽃 순정'에 함께 출연하며 연인으로 발전한 두 사람은 5년 열애 끝에 2015년 부부의 연을 맺었다. 최근에는 신혼여행지 제주도 보육원에서 만난 대학생 딸을 공개 입양해 큰 화제를 모았다.

두 사람은 이번 방송에서 6년 차 부부의 결혼 생활은 물론, 딸 세연 양과 함께 하는 단란한 일상을 최초로 공개할 예정이다.

연출을 맡은 김동욱 PD는 “두 분이 왜



연예계 대표 '잉꼬부부'로 꼽히는지 알겠더라. 두 분이 함께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고 아름다웠다"라며 "특히 딸 세연 양과 인연을 맺게 된 이야기에 크게 감동했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 TV프로그램

8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KBS 뉴스광장	00 걸어서 세계속으로 50 생방송 아침이 좋다	00 MBC 뉴스 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광중 MBC 뉴스 투데이 50 나쁜 사랑	15 KBC 모닝와이드 35 모닝와이드 3부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35 맛 좀 보실래요
9	30 KBS 뉴스	00 꽃길만 걸어요(재) 40 무한리필 샐러드	30 930 MBC 뉴스 55 중계방송 국회 인사청문회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10 좋은아침
10	00 중계방송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40 지구촌 뉴스		00 중계방송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11		00 99억의 여자(재)		
12	00 KBS 뉴스 12		00 12 MBC 뉴스 20 하자있는 인간들(재)	00 SBS 12 뉴스 20 민방 네트워크 뉴스 40 고향전문록 스페셜-사적인 여행 50 내모세모
1	00 KBS 네트워크 특선 고교생 50 KBS 재난방송센터	2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50 날아라 숲들이 뉴 비기닝(재)	30 헬로키즈 신비한 자연교실 2 50 중계방송 국회 인사청문회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55 닥터 365
2	00 KBS 뉴스 10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00 뉴스브리핑
3		00 KBS 뉴스타임 10 자동차부착식 위키 2 30 TV 유치원		
4	00 사사건건	00 무한리필 샐러드(재)	00 벅스봇 30 뽀뽀뽀 모두야 놀자 스페셜	00 SBS 스페셜(재)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도그래피	00 반지의 비밀일기 2 15 숲! 내 친구는 빅파이브 30 강력추천 배틀 트립	00 5 MBC 뉴스 25 최충우돌 전국 유랑기	00 SBS 오뉴스 45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25 오매! 전라도	00 백중원의 골목식당(재)
7	00 KBS 뉴스 7 40 미니다Q	50 우아한 모녀	30 MBC 뉴스데스크	00 닥터 365 05 환상의 타이밍 다시보기
8	05 집중 인터뷰 이사람 30 꽃길만 걸어요	30 글로벌24 55 살리는 남자들	55 하자있는 인간들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본격연예 한밤
9	00 KBS 뉴스9			
10	00 시사토론 '10' 55 더 라이브	00 99억의 여자	05 특집다큐 포구만리	00 이동욱은 토크가 하고 싶어서
11	35 UHD 숲터 4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10 개그 콘서트(재)	05 라디오스타 1~2부	10 백중원의 골목식당 1~2부
12	30 KBS 뉴스 40 인간극장 스페셜	30 스포츠 하이라이트 55 KBS 재난방송센터(재)	35 함께사는세상 희망프로젝트 나누면 행복	30 나이트라인

## EBS1

07:00 로보카 폴리	12:10 극한직업	18:00 꾸러기 천사들
07:15 꼬마버스 타요	13:00 EBS 다크프라이	19:00 스파이더맨
07:30 뽀롱뽀롱 뽀로로	13:55 EBS 초대석	19:30 생방송 판다다
08:00 당동영 유치원	14:45 몰랑	20:00 머털도사
08:30 애코와 친구들	14:55 꼬마버스 타요(재)	20:50 세계테마기행 1~2부 <발걸음마다 새로운, 유카탄 반도 -마야의 숨결을 느끼다>
08:45 최고다! 호기심딱지	15:10 로보카 폴리(재)	21:30 한국기행 <맛나다. 겨울 주전부리 3부 섬마을 정 한 그릇>
09:00 엄마 까투리	15:25 제로니모 스틸턴의 모험	21:50 EBS 다크프라이
09:30 원더볼츠	16:10 최고다! 호기심딱지(재)	22:45 극한직업
09:40 아옹명명 귀여워2	16:25 페파 피그(재)	23:35 EBS 초대석
10:00 지식의 기쁨	16:40 당동영 친구들-장난감나라의 비밀	24:25 지식의 기쁨(재)
10:30 한국기행(재)	17:00 EBS 뉴스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7:20 그림을 그려요	
11:20 세계테마기행(재)	17:30 애코와 친구들(재)	
12:00 EBS 정오뉴스		

  

	知天命이 보는 <b>오늘의 운세</b> 1월 8일(음 12월 14일 庚戌)	☎ 010-9790-8237
36년생 한 가지 일에 전념해야 성사시게 될 것이다. 48년생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면 문제점이 속출할 것이다. 60년생 결정을 해야 할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다. 72년생 양호한 단계에 이르게 되는 모양새다. 84년생 끝없이 빠져들 수 있으니 분명한 한계를 두자. 96년생 분명히 이로운 것과 관련된 것이니라. 행운의 숫자 : 51, 94		42년생 어려움은 보이지만 맞서 버린다면 게임이다. 54년생 분개도와는 상당히 동떨어져 있느니라. 66년생 염려할 정도는 아니다. 78년생 장고 끝에 내린 결론이라면 실행해도 된다. 90년생 접근성이 좋아야만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느니라. 02년생 상투적인 일상에 탐바잠할 수 있는 파격이 필요하다. 행운의 숫자 : 60, 85
37년생 의견을 개진한다면 바람직한 반응이 있으리라. 49년생 기본적인 것을 무시하지 말라. 61년생 한계를 벗어난다면 중차대한 단초들이 발생할 수 있다. 73년생 마음을 비우면 그만이다. 85년생 그 무엇보다도 실익을 기준으로 판단하라. 97년생 상서로운 빛이 비치니 걸한 조짐으로 봐도 된다. 행운의 숫자 : 66, 36		31년생 과감하게 정리하는 것이 낫다. 43년생 가능성이 다분한 상황이다. 55년생 상이하다고 불지 모르나 궁극적으로 합치한다. 67년생 경원자의 충고에 귀 기울여라. 79년생 시비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 91년생 기회는 준비하고 있는 이의 것이다. 행운의 숫자 : 93, 31
38년생 길사의 성립 조건들을 마련해 나가는 정황이 역력하다. 50년생 일하지 않을 수도 있느니라. 62년생 운운 되어야 할 범위를 지나쳤을 때는 부작용이 심할 것이다. 74년생 상대의 배려에 뜨겁게 감동 받게 되리라. 86년생 강력한 기득권의 횡포 앞에서 휘둘릴 수 있다. 98년생 징후가 옹니 분명히 길사가 일어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80, 28		32년생 군사에 있어서는 간사한 꾀를 꺼리지 않는 법이다. 44년생 민감하게 반응하고 대처하라. 56년생 시기를 놓친다면 실수를 하게 됨이니 늦지 않도록 하라. 68년생 분명히 허점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80년생 여태까지 진행해 오던 바의 방향이 행운과 일치하겠다. 92년생 필요하다면 소급해서 적용해도 아무 탈이 없느니라. 행운의 숫자 : 85, 68
39년생 실력 눈에 띄더라도 못 본체하고 넘어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느니라. 51년생 기교가 첨가된다면 더 할 나위 없겠다. 63년생 양호한 기반이 완만한 전개를 담보한다. 75년생 재조명하게 되리라. 87년생 형세가 석연치 않다. 99년생 어깨춤이 절로 나오는 경사가 있겠다. 행운의 숫자 : 78, 70		33년생 상대의 농담 속에는 시사하는 바가 있음을 알고 있어야 한다. 45년생 불편하다면 버려라. 57년생 지나치지 않는 선에서 과감하게 진행해야 할 때. 69년생 마구 뒤쫓아 있을 수도 있으니 중요도에 따라서 선후를 가려야 한다. 81년생 소신껏 일관되게 추진해 나간다면 성취하게 되어 있다. 93년생 일방적이라면 경직 될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09, 50
40년생 참으로 기쁜 일이 생기게 되는 날이나라. 52년생 가장 일반적인 방법을 택하는 것이 무난하리라. 64년생 노파심은 활동력을 저하시킬 뿐이다. 76년생 처음부터 끝까지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88년생 유사한 상황만 반복해서 계속 될 뿐이지 별로 도움은 되지 않는다. 00년생 계획은 좋지만 실행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06, 69		34년생 강당할 수 있는 능력의 범위 내에서 임하라. 46년생 조금만 더 나아간다면 목표에 이르게 될 것이다. 58년생 발설하지 말고 끝까지 참고하고 있어야 한다. 70년생 탐스러운 결실이 열리기 시작하는 본원이다. 82년생 잘 생각해 보면 무엇인가 잡히는 것이 있으리라. 94년생 당연한 값음이 있겠다. 행운의 숫자 : 87, 59
41년생 결단의 발목을 잡고 있는 악재가 보인다. 53년생 기회가 도래하고 있으니 놓치지 않도록 하자. 65년생 끝나는 마당에 작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77년생 애매한 것이 있으면 반드시 확실하게 하라. 89년생 배려하는 입장에 서다 보면 꼬인 일도 풀리리라. 01년생 매우 구체적이야하면 실제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니라. 행운의 숫자 : 31, 14		35년생 자료를 종합한 다음에 행하라. 47년생 우회하더라도 지장이 없으니 착실하게 임하라. 59년생 마음먹은 대로 해나가도 전혀 지장이 없겠다. 71년생 호기가 돌아 왔으니 본격적으로 추진해도 된다. 83년생 가장자리가 매우 부실한 형태이나라. 95년생 초심대로 행해도 전혀 지장이 없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73, 75